

시각 미디어에 의한 대재앙적 사건의 트라우마 규정과 그에 따른 문제들

- “반모방 이론”에 대한 비평적인 분석을 통해서

서 길 완
(건국대학교)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시각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이 ‘트라우마’로 정의되는 과정과 그에 따른 문제들을 궁구(窮究)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은 9/11이 “국가적 트라우마”로 시각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9/11 테러 사건은 그 사건의 가장 충격적인 이미지들 중 하나인 타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들을 배제한 채 “국가적 트라우마”로 구성되었다.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둘러싸고 벌어진 미국 시각 미디어의 이 같은 재현 작업은 대재앙과 폭력적인 사건을 트라우마 규정하는데 이론적인 기초를 제공하는 현대 트라우마 이론 연구와 맞물려 있다. 본 논문은 미국의 주요 시각 미디어들이 9/11 테러 사건을 트라우마로 정의할 때 그 차제의 트라우마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현대 트라우마 이론 연구의 지배적인 경향인 “반모방 이론”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을 포착하고 그 이론 모델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한다. 이 작업은 시각 미디어가 “반모방 이론”에 기대서 어떤 사건을 ‘트라우마’로 정의할 때 초래되는 문제점과 위험성을 드러내 보여준다. 미국의 시각 미디어가 9/11을 “국가적 트라우마”로 명명할 때 사용한 트라우마의 “반모방 이론”은 트라우마적 사건의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재현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사건에 대한 외상 주체의 능동적인 대응 방편과 사건과 관련된

인간적인 양상에 대한 이해를 결여한다. 트라우마의 형성과 해석과 관련해서 외상 주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외부 권력의 조작적인 개입 가능성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트라우마의 “반모방 이론”이 갖는 이 같은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비평적인 시각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시각 미디어를 통해 대재앙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이 특정 미디어나 외부 권력의 규정적인 관점에 대해서 대재앙적 사건을 경험하고 대응하는 대안적인 시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주제어 : 트라우마, 대재앙적 사건, 시각 미디어, 9/11, 떨어지는 사람들의 이미지, “반모방 이론”

1. 들어가며

9/11 테러 공격이 트라우마로 규정될 당시 가장 충격적인 사건들 중 하나는 타워에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서 죽어가는 비참한 상황이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이미지들의 배제와 실종을 둘러싸고 벌어진 시각 미디어 재현의 이상한 전개 양상은 본 연구의 중요한 배경을 제공한다. 세계 무역 센터가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은 역사상 가장 사진이 많이 찍히고 비디오로 많이 촬영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그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모습과 관련된 충격적인 이미지들은 그리 오랜 생명력을 갖지 못했다. 그들의 모습이 처음 사진 기자들에 의해서 포착되었을 때 “TV나 신문의 생중계 비디오 영상장면과 사진으로 잠시 보여졌다”(Frost 186)가 얼마 지나지 않아 유포가 중지되거나 조심스럽게 편집되어서 전달되었고, 급기야 그 이미지들에 대한 언급이 터부시되는 경향까지 생겨나면서 모든 언론 매체들은 그와 관련된 이미지들을 자진 회수했기 때문이다. 이후 미국의 주요 방송국들은 타워가 공격을 받아 붕괴되는 장면의 영상 이미지와 그것들을 보고 놀라서 소리를 지르고 이내 돌같이 굳어버린 대중의 모습을 교차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장면들과 함께 소방관과 구조대원들의 영웅적인 구조 장면을 삽입해서 설 새 없이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그리고 미 부시 정부와 주요 언론 매체들은 일제히 그 사태를 “국가적 트라우마”(a national trauma)(Smelser 280)로 규정한다.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대목이 있다. 트라우마적

사건으로서 9/11의 정의의 정당성이 트라우마 연구자들과 문화 비평가들의 즉각적인 설명이 덧붙여짐으로써 공고해졌다는 점이다. 9/11 사건 직후 트라우마 연구자들과 비평가들은 테러리스트 공격과 그 사후를 지켜보았던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한 심적 혼란의 증거(마비 반응과 같은 외상 후 증상)들을 찾아서 그 사건이 ‘트라우마적’이라고 해석함으로써, 부시 정권과 주요 언론 매체의 “국가적 트라우마” 정의를 정당화하는 데 무게를 실어주었다. 특히 정신분석가이자 저명한 트라우마 연구자로 잘 알려진 도리 라웁(Dori Laub)이 9/11 테러 공격 이후 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한 대목은 그 사건에 대한 문화 비평가와 이론 연구자들의 관점을 가장 잘 대변하는 것으로 꼽힐 수 있다. 라웁은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스러운 무력감과 심적 마비 증세를 일으킨 9/11 사건은 피해자에게 형언할 수 없는 “막대한 심적 외상의 경험”(204)이라고 진술한다.

본 논문은 9/11에 대한 이 같은 정의는 “반모방 이론”(anti-mimetic theory) (Leys 9)모델이라 불리는 현대 트라우마 이론 연구의 지배적인 이론 경향에 기초하고 있음을 포착했다. 이 이론 모델은 외상 “주체와 트라우마 사건의 외재성(the externality of the traumatic event)사이의 엄격한 이분법”(Modlinger and Sonntag 12)을 설정하고 그 둘 사이의 관계를 인과론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트라우마의 존재 근거를 산출한다. 말하자면 트라우마는 실제 외부 사건으로 말미암아 생긴 극심한 심적 상처이기 때문에, 이 두 항 사이에 그 어떤 매개적인 요인이 자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일어난 사건과 사건 경험의 당사자(피해자)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과 무매개성을 통해 트라우마의 존재 근거를 산출하는 이 이론 모델은 트라우마 역사로서 사건의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건을 경험한 주체 내부의 매개적인 요소들을 철저히 억압한다. 그만큼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건 자체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 본 논문은 외상의 주체보다는 사건 자체에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 같은 이론 모델이 대재앙적인 사건이나 잔악한 폭력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틀로 사용될 때 중대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본 논문은 바로 이 작업을 타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미지가

어떻게 시각 미디어에서 배제되고 실종되는지를 9/11 테러 사건이 “국가적 트라우마”로 규정되는 과정과 연계해서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적 트라우마”로 정의되는 전략적인 과정이 현대 트라우마의 이론의 주된 경향인 “반모방 이론” 모델에 기초해 있음을 증명하는 작업과 연동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다음 시각 미디어의 그런 전략적인 재현과 반응양상이 외상의 궁극적인 치유와 애도를 방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런 재현 양상이 트라우마를 정의하는 편의 이익을 위해 오용될 정치적인 위험성 있다는 점을 비평적으로 검토한 뒤, 그런 시각 재현 양식의 한계와 단점을 보완할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시각 미디어 재현에서 배제된 떨어지는 남자의 이미지

9/11 테러 발발 당시 전문 사진 기자인 리처드 드류(Richard Drew)는 세계 무역 센터 건물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포착한 스틸 사진들 중 하나를 미국의 작은 지방 신문사로 보냈다. 그 사진은 다음 날 미국 주요 신문이나 일간지 앞면을 장식하면서 미전역에 엄청난 공포와 혼란을 안겼다. 그러나 사진이 유포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그와 관련된 영상과 이미지들은 언론 매체와 미국 국민들의 마음에서 순식간에 사라지고 지워졌다. 대신 그 자리엔 테러리스트들이 탄 비행기가 세계 무역 센터 건물과 충돌하는 장면과 타워 붕괴 장면, 회색 장막과 같은 연기와 잔해로 뒤덮인 도시의 모습, 그리고 뒤이어 소방관들의 영웅적인 구조 이야기로 대체되는 상황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재생되고 재생산되었다. 이들 장면을 본 시민들의 반응은 예외 없이 경악과 충격으로 일제히 경직되고 마비된 된 모습으로 묘사되고, 심지어 그들이 목격한 상황을 ‘영화 같다’는 표현으로 애써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이와 동시에 부시 정부와 언론들은 그 사태를 일제히 “국가적 트라우마”로 명명하며 그에 대한 조속한 애도 작업과 치유적인 방안을 제안한다. 그 방안이란 추모와 기념비(관)를 설립하고 ‘테러와의 전쟁’을 속행하는 것이었다. 타워 공격과 붕괴라는 역사적인 사건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고 심적

마비 상태에 빠진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치유하는 방편은 공격자들을 응징하고 공격당한 그 자리를 빨리 수습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공적인 애도작업을 거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테러 공격과 빌딩 붕괴 장면보다 먼저 대중의 뇌리에 충격적인 인상을 남겼던 타워에서 떨어진 희생자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국가적 트라우마를 애도하는 작업을 논하는 공적 담론의 장에서 타워에서 떨어진 희생자들과 그들의 이야기는 왜 말하여지지 않는 것일까? 그리고 이들의 이미지가 삭제되고 배제됨으로써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가?

톰 주너드(Tom Junod)라는 기자는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터부시되는 당시의 상황에서 바로 이 같은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는 과감한 시도를 함으로써 9/11에 대한 주요 언론 매체의 시각적 재현 양식과 그것을 수용하는 문제와 그 효과에 따른 문제를 드러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너드는 먼저 드류의 스틸 사진 <떨어지는 남자>("The Falling Man") 속 인물의 정체를 찾는 작업부터 시작한다. 사진에서 떨어지는 사람의 몸 윤곽은 뚜렷이 잘 보였지만, 그의 얼굴은 너무 희미하게 찍혀서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떨어지는 남자”의 정체를 찾는 주너드의 작업은 끝내 성공을 거두지 못한다. 이유는 인물 속 주인공의 가족으로 거론된 사람들, 특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친지가 뛰어내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경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되기 때문에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사진 속 인물의 신원을 확인해주는 일을 거부하거나, 희생자들의 자리가 어찌면 그들 자신이나 그들 가족의 자리가 될 수 있었다는 무섭고 두려운 상상적 현실과 희생자들을 위해 어떤 도움도 줄 수 없었다는 무력감과 죄책감을 마주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피하기도 했다는 것이다.¹⁾

1) “떨어지는 남자”에 대한 신원확인 작업에 대한 가족과 친지들의 이 같은 거부반응은 드류의 사진이 처음 펜실베이니아의 작은 지방 신문에 실렸을 때 독자들이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던 것과 맥을 같이 한다. 주너드는 그의 유명한 논설에서 “떨어지는 남자”의 재현을 둘러싼 거부반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그 이미지에 대한 저항은 일찍이 시작되었고, 지상에서 곧바로 시작되었다. 놀란 아이에게 엄마는 위안의 거짓말을 한다. ”아가야, 아마도 저들은 새 일거야.” 그리고 소방서 부책임자 빌 프리한(Bill Freehan)은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찍는 사진가들에게 카메라를 당장 꺼라고 명령하며 내쫓았고, 그러곤 ”당신들에겐 인간의 존엄이

이 같은 복잡한 심경들은 “떨어지는 남자”의 명칭을 둘러싼 논쟁에도 재연된다. 9/11 직후 “떨어지는 남자”가 “점프하는 사람들”(Jumpers)(Gerlach 30)로 지칭되면서 많은 논란이 가열되기도 했는데, 이 논란의 중심을 들여다 보면 “떨어지는 남자”의 이미지에 대한 사람들의 회피심리와 그들의 희생이 망각되어서는 안된다는 내부적 갈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점프하는 사람들”은 자진해서 뛰어내리는 사람들이지만, 떨어지는 사람들은 안정을 보장받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뛰어내려 생존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 용어가 그 상황에 적합하지를 따지는 것이 핵심 논점이었다. 가열된 논쟁 결과, “점프하는 사람들”이라는 용어는 금기시되고 “떨어지는 남자”의 이미지는 한 개인이 오롯이 혼자 죽음과 대면해야 하는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을 상징하며 살아남을 수 없다는 좌절과 무력감이 응집된 영원한 순간으로 남게 되었다. 주너드는 그 순간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진술한다.

2001년 9월 11일 오전 9시 41분 15초 후에, 리처드 드류라는 이름의 한 사진기자는 시간과 공간을 뚫고- 상공에서 떨어지는 한 남자의 사진을 찍었다. . . 인간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들 중 하나인 이 사진은 표식이 없는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떨어지는 남자-라는 사진 틀 안에 매장된 그 남자는 여태껏 우리가 본적도 없는 전쟁의 끝에서 이름 없는 병사가 되었다. . . 그 사진은 그의 기념비가 되었고, 그리고 어느 곳이나 있는 무명 병사들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와 같은 것이 되었다.

At fifteen second after 9:41 a.m., on September 11, 2001, photographer named Richard Drew took a picture of a man falling through the sky--falling through time as well as through space. . . One of the most

없는가”라고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두고 주너드는 뛰어내리는 사람들과 관련된 이미지는 미국 미디어 세계에서 합의에 의해서 터부가 된 유일한 이미지라고 주장한다. 그런가 하면, 록펠러 재단 센터에서 전시되기로 예정된 에릭 피של(Eric Fischl)의 청동상 <굴러 떨어지는 여자>(Tumbling Woman)는 불쾌감을 준다는 사람들의 불평 때문에 전시되지 못하고 철거되었으며, 또 다른 예술가 샤론 파즈(Sharon Paz)의 떨어지는 사람들의 실루엣은 자메이카 예술 학습 센터 창문에 전시되었다가 관람객들의 반대로 철거된 바 있다.(Frost 182-183 참조)

famous photographs in human history became an unmarked grave, and the man buried inside its frame--the Falling Man--became the Unknown Solider in a war whose end we have not yte seen. . The picture is his cenotaph, and like the monuments dedicated to the memory of unknown soldiers everywhere. (9)

주너드는 사진의 틀 안에서 표식도 없이 매장된 타워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이 같은 죽음을 조르조 아감벤(Giorgio Agamben)의 용어를 빌어 ‘벌거벗은 삶’(bare life)라고 명명한다. 그들의 “죽음은 미디어에서 인정되지 않았고, 또 떨어진 사람들은 신성한 미국의 대지에서 배제”되었다는 점에서, “떨어지는 남자”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도, 국가의 영예를 위해서 희생될 수 없는 ‘호모 사케르’(homo sacer)라는 것이다. 심지어 기념관을 세우고 추도식을 하는 공식적 애도의식에서도 그들은 어떤 한 가정의 구성원이나 개인으로 복권되기보다는 “실종자의 일원들”이나 “미국인들”이라는 익명으로 추대되었다(228). 제니 에드킨스(Jenny Edkins)의 표현대로,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소멸된 것이다”(227). 따라서 그 가족과 친지들은 매장할 시신도 수습하지 못한 채, “죽음 없는 사망증명서”(227)를 받아들고 실종된 이들의 죽음을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 언뜻 보기에 국가 주도하에서 거행된 추도식에서 그들의 죽음이 ‘희생’이라는 이름으로 복권되는 듯 보이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계 1차 대전의 징집병들처럼 보다 더 큰 선”을 위해 희생된 “미국인들”로 “상각되는(written off)차원에서 그러한 것이다(Edkins 228).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볼 때, 타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과 그들에 대한 이미지는 9/11 사건이 “국가적 트라우마”로 구성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았던 “대재앙의 인간적인 양상”(Gerlach 3)이며, 죽음과 파괴의 공포, 그리고 뉴욕 시민들이 너무도 당연시했던 시민권의 취약성을 노출시켜 사회적인 삶의 근저에 놓여 있는 인간 존재의 불확실성과 상처입음(피해)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내면적 갈등 요소, 즉 “미국 사회의 신경을 건드리는데”(Redfield 32) 요소인 것이다. 이런 내적 갈등이 9/11의 시각 미디어의 반응에 기입될 경우, 트라우마적 역사로서의 9/11의 위상과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의 입지는 심하게 오염될 수밖에 없다. 9/11의 트라우마는 순전히 테러

공격의 충격 때문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내부 갈등이 역사적 무대에 투사된 결과이며,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국인들이 가졌던 내면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타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의 입지와 상상적으로 동일시한 결과로 생겨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떨어지는 남자”에 대한 “미디어의 엄격한 자기 검열”(Redfield 32)과 같은 부정적인 반응은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트라우마와 그 주체의 입지를 지켜내고자 하는 방어 전략으로 풀이될 수 있다. 9/11 트라우마의 본질은 순전히 외부 공격에 있으며, 바로 그 충격 경험을 있는 그대로 전승한 미디어를 통해 무고한 대중이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강조해서 보여주려 한 것으로 독해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떨어지는 남자”의 이미지는 사전 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테러 공격을 받은 미국과 미국의 국민들이 무고한 피해자로 자리매김 되는 “국가적 트라우마”로서의 9/11에 합체되어서는 안 되는 요소인 셈이다. 무엇보다 9/11의 가장 비극적인 희생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타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왜 그들이 그곳에서 떨어졌어야만 했는지 등 그 사건의 전말과 희생자들의 인간적인 삶에 대한 보다 깊은 성찰 없이, 그리고 다른 무명의 피해자들과 희생자들을 위한 진정한 치유와 애도 작업을 뒤로 하고, 테러 공격 국가에 대한 즉각적인 군사 보복 조치를 위한 국민적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바로 이 같은 독해에 대한 타당성을 제공하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다.²⁾

위의 설명은 트라우마가 힘과 권력을 지닌 집단의 특정 목적(정치적 전략)을 위해 전유되거나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 보여주며, 또한 미국 대중이 그 사건의 가장 끔찍한 양상을 제대로 대면하지 못하고 문제를 봉합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하다.³⁾ 이 문제를 보다 더 명백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
- 2) 테러 공격으로 인한 최초의 충격이 어느 정도 사그라졌었을 때 희생자들을 위한 애도 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여전히 타위에서 떨어진 사람들의 끔찍한 희생이 거의 언급되지 않는 채 추도와 기념식이 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 3) 9/11은 분명 특별하게 충격적인 사건임에 틀림없지만 사건의 강도와 규모에 있어서 다른 역사적인 사건과 비교할 때 그렇게 예외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네일 제이 스멜스(Neil J. Smelser)가 적절하게 지적하듯, 노예제, 홀로코스트와 베트남 전쟁과 같은 역사적인 사건이 트라우마로 구성되고 그 피해자들이 외상의 주체로 구성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 것과 비교해볼 때, 9/11와 그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너무

어떤 사건이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규정되는 데 있어 트라우마의 효과를 재생산하는 미디어의 역할, 즉 미디어 자체의 트라우마 논리 혹은 “그 사건에 대한 특별한 종류의 해석”(Meek 172)이 비평적으로 검토될 필요성이 있다. 9/11의 경우, 시각 미디어의 반복 재생과 같은 특별한 재현 양식이 9/11 테러 사건이 “국가적 트라우마”로 규정되는 데 있어 시각적 증거 자료를 제공하고,⁴⁾ 트라우마 연구자들은 그것의 가치를 증명하는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9/11와 같은 특별한 사건이 시각 미디어에 의해서 트라우마로 정의될 때, 그러한 정의를 뒷받침한 이론적인 근거와 그것을 채택해서 대재앙적인 사건을 재현한 시각 미디어 전략 사이의 상호작용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III. “반모방 이론”과 시각 미디어 재현

9/11 테러 발발 당시 미국의 주요 시각 미디어는 테러 공격과 빌딩이 붕괴되는 이미지와 그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교차 반복적으로 보여줌으로써 9/11을 트라우마적 사건으로 구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우렸다면, 9/11 이후에는 부시 정부의 외교 정책인 “테러와의 전쟁에 본질적인 이분법”(Keniston and Qinn 10), ‘선과 악, 서양과 동양, 그리고 피해자인 우리와 가해자인 그들 사이의 이분법 통해서 트라우마적 피해자 주체(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부시 정부와 국가적 미디어가 9/11을 트라우마로 규정할 때 끌어들이는 바로 이 특별한 재현논리와 담론의 틀은 루스 레이즈(Ruth Leys)가 “반모방 이론”라고 명명한 현대 트라우마 이론의 주된 경향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레이즈의 관찰에 따르면, 최근 몇 십 년간에 걸쳐 트라우마 이론 연구의 경향

급속하게 트라우마와 외상의 피해자로 규정되었다.(280 참조)

- 4) 토마스 엘새서(Thomas Elsaesser)는 미디어가 9/11와 같이 “역사적, 공적, 그리고 충격적인 사건을 재생적 반복 양식으로 다루는 방식은 주관적인 트라우마 기억의 강박적인 시간”(197)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사건 직후 특히 인터넷 등의 시각 미디어를 통해서 당시의 공격과 충격적인 상황을 끊임없이 재생해서 보여 준 미디어의 반응은 플래시백과 같은 트라우마적 증상의 문화적인 등가물이라는 것이다.

은 바로 이 “반모방 이론”에 치우쳐서 발전되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경향은 학계의 전문 연구 영역을 넘어 대중적 담론에까지 깊이 침투했다.

레이즈가 “반모방 이론”이라고 명명한 이 이론 모델은 트라우마의 특별한 경험 양상을 설명하는 틀이다. 레이즈에 따르면, 이 이론 모델은 트라우마적 경험에 기본이 되는 모방적인 동일시 과정이 포함되지만, 여기서 외상의 주체는 충격적인 대상이나 사람 혹은 사건과 합체되는 것이 아니라 트라우마적 사건을 있는 그대로 직접 전달한다.⁵⁾ 트라우마는 순전히 외부 사건이나 이미지로부터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건과 외상 주체 사이의 관계에서는 그 어떤 매개적인 요소가 개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외상의 주체는 악몽, 반복적 행동, 마비와 같은 외상 후의 증상을 통해 대대양적 사건을 외재화하는 수동적인 매체, 즉 일어난 사건을 정확히 전달해주는 담지자의 역할을 한다. 외상 주체에게 이 같은 역할이 부여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트라우마에 내재된 역설적인 구조 때문이다. 사건이 발생할 당시 가공할만한 외부 충격으로 말미암아 경험 당사자는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파악하지 못하지만, 사후적으로 트라우마 주체는 자기도 모르게 경험된 과거를 되살이(reliving)함으로써 사건이 직접적이고 정확하게 전달하게 된다. 따라서 여기서 예기치 못한 사건을 부지부식 간에 경험하는 당사자, 즉 외상의 주체는 가공할 만한 외부 자극에 반응하는 수동적인 주체, 사건 자체를 ‘재연하는’(enacting) 사건으로서의 몸’, 그리고 순전히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담지자이자 바로 그 사건과의 돌발적인 조우(encountering) 때문에

5) 레이즈는 트라우마의 개념과 역사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 이론 연구가 두 가지 경향, 즉 “모방적 트라우마 이론”(mimetic theory of trauma)과 “반모방적 트라우마 이론”의 경향으로 발전해나가고 있음을 포착한다. 레이즈에 따르면, 첫 번째 이론은 트라우마, “외상을 입은 사람의 경험은 처음 외상을 초래한 사람, 장면이나 사건과 최면적인 모방을 하거나 동일시”하는 행위와 관련해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외상의 주체는 그것을 재연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모방”할 수밖에 없다 (Leys 8). 이러한 모방과 동일시의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모방과 동일시의 대상에 완전히 휩쓸려 들어가거나 맹목적으로 함몰되어 그/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을 제대로 인지하거나 이해할 수 없다. 레이즈는 이 “모방 이론”이 본문에서 설명되는 “반모방 이론”과 대립적인 입지를 차지하며 트라우마의 개념의 역사에 언제나 공존해왔지만, 최근 몇 십 년 간 트라우마 이론 연구의 경향을 관찰한 바에 따르면 “반모방 이론”이 현대 트라우마 이론의 주된 경향으로 발전되는 뚜렷한 양상을 보인다고 주장한다.

외상을 입는 피해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반모방 이론”에서 외상 주체의 이 같은 수동적인 입지는 주체가 외부 사건과 맺는 관계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비록 수동적이긴 하지만, “해리(dissociation)를 겪고 있는”(Radston, 72) 외상 주체는 “트라우마적 경험에서 본질적으로 떨어져 있기”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을 포함한 다른 매개적인 요인들에 오염되지 않고 그/그녀의 “자율성”(Leys 9)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다. 일어난 사건의 장면이나 영상 이미지 그리고 사건 희생자와 공격자와의 상상적인 동일시를 통해 그들의 고통과 상처를 훔쳐 내고 모방함으로써 외상을 입는 것이 아니라 사건 자체의 무매개적인 되살이가 트라우마를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와 외부 사건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 “안과 밖, 희생자와 범죄자의 이원론”(Gibbs 21)이 상정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같은 외부 세계에 대한 내부 요소들 사이의 매개가 최소화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이해의 바탕에서 우리는 9/11에 대한 시각 미디어 반응의 파생적인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의 직접성(the literal)(Leys 105)과 진정성에 대한 증명이다. 타위가 폭격당하고 붕괴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재생하는 시각 미디어의 반응은 사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재연하고 되살이하는 트라우마 증상과 같은 효과를 산출하고, 동시에 시각 미디어의 바로 그 무매개적이고 직접적인 전송의 내용을 목격한 미국 대중은 마비 증상과 같은 외상 후 반응을 발현한다는 점을 교차해서 보여줌으로써 9/11 사건은 그 어떤 매개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오염되지 않는 트라우마적 역사임을 보증하는 것이다. 알란 깁스(Alan Gibbs)에 따르면, “트라우마적 사건은 필히 외부 공격의 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트라우마는 외부 충격에 기인한다는 트라우마 이론의 절대론”(trauma theory's absolutism)(21)은 대재앙적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무고한 피해자의 입지를 부여한다. 손쓸 겨를도 없이 급작스럽게 들이닥친 엄청난 위협과 외부 자극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는 그 상황을 이해할 시간은 물론 그것을 대처할 능력까지 박탈당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새김질하는 증상 형태로 대응을 하거나 마비적인 반응을 표출해서 방어벽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물론 실제 외부 사건의 충격적인 영향으로 외상을 입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됨으로써 피해-희생자의 실질적인 보상과 치유의 근거가 마련되다는 점은 트라우마의 피해자와 희생자들에게 분명 필요하고 중요한 일임에 틀림없다. 문제는 이러한 관점에서 외상을 입은 사람들에게 대한 인간적인 문제뿐 아니라 그와 관련해서 보다 더 복잡하고 깊은 문제를 조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 이론 관점에서 외상의 주체는 “수동적인 피해자”(Radstone 118) 혹은 단순한 수혜자의 입지에 놓일 뿐 그 문제를 대면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행위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전술되었듯이, 자신이 겪은 일을 “재현하거나 말할 수 없는, 즉 트라우마를 알지 못하는 주체”는 트라우마적 경험을 되살이함으로써 “그 진실을 보증”(Gibbs 23)할 뿐이다. 일어난 사건 자체, 혹은 사건과 영접화된 거리에 있는 외상의 주체는 대재앙적인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 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사태에 대한 해결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모르는, 그럼으로 그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무력하고 무고한 피해자로 자리매김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대재앙적인 사건과 피해자들을 둘러싼 복잡한 문제들은 개인들의 심적 치유문제로 환원되거나 외부적인 힘과 권력이 개입해서 해결해야할 정책의 문제로 이양될 위험성이 커지게 된다.

후자의 경우, 트라우마가 충격, 파열, 혼란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과 주체들을 형성하는 정치적인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노정한다. 이와 관련해서 실제로 앞서 언급된 미크와 에드킨을 비롯한 다수의 비평가들은 9/11 직후 미국 정부와 주요 언론 매체들이 보인 일련의 반응들을 “충격의 정치학”(Meek 195)의 소산이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특히 타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과 그들의 이미지에 대한 미국 대중의 극심한 거부와 회피반응, 그리고 그 용어를 둘러싼 가열된 논쟁에 관한 이야기는 배제한 채, 베트남전 참전의 경우와 달리 내부적인 진통을 겪지 않고 ‘대테러 전쟁’에 대한 거의 전원 찬성에 가까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점은 9/11의 충격과 상처가 그 만큼 국소적이고 지역적인 위안정책과 보복 정치에 활용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시각 미디어가 “9/11 사건의 트라우마적 지위를 대중의 직접적인 경험을 넘어선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미국 대중의 새로운 주체와 정체성

을 피해-희생자로 형성하는 데 지대한 공헌을 했을 뿐 아니라 “사회적인 손실과 정치적인 한계를 특정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인 사건과 연결 짓는 희생자 문화”를 산출하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래드스톤의 지적은 “반모방 이론”을 그 자체의 트라우마 논리로 사용한 미국 시각 미디어의 재현 방식과 관련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Screening,” Radstone 90).

IV. “반모방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 검토

앞서도 언급했듯이, 트라우마의 존재 근거를 외부 사건(객관적인 요인)에서 돌출하는 “반모방 이론”의 방법론은 실제 증명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주관적인 고통과 상처를 객관화하려고 노력함으로써 대재앙적 사건의 피해자들의 고통 치유와 실질적인 보상의 문제에 도움이 되는 이점이 있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트라우마의 외인성에 트라우마 연구의 관심이 집중되는 경향은 그 이론 모델이 갖는 장점을 상쇄하고 더 나아가서는 특정한 목적에 악용될 위험을 산출한다. 그런 이유로, 여기서 우리는 “반모방 이론”이 트라우마의 존재를 도출하는 데 있어 핵심 준거로 삼는 트라우마의 무매개적인 전송, 외상 주체와 사건 사이의 엄격한 이분법과 인과론적 관계를 비평적으로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외상주체가 외부에서 일어난 사건 자체만을 정확히 있는 그대로 전송하고, 시각 미디어가 시청자들에게 그런 트라우마적 경험을 직접적으로 전달하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해볼 때, 대재앙적 사건과 잔악한 폭력을 경험한 당사자들이 그들에게 닥친 일이 어떤 것이며, 사후에 그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얘기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마드리 J. 호로위츠(Mardi J. Horowitz)와 리차드 라자러스(Richard Lazarus)의 실험연구들은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준다.

먼저 호로위츠는 스트레스 영상(stress films)을 이용해서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인자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를 했다. 호로비츠의 실험 방법이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그의 실험이 ‘정신적 이미지는 트라우마적 장면의 정확한 귀환이다’는 관념을 부추겨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 범주와 그 대상이 되는 환자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점이

다. 따라서 호로비츠의 실험은 “반모방 이론”이 소중이 여기는 논리를 실험적으로 증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될 수 있는 바, 그의 실험을 비평적으로 검토하는 일은 “반모방 이론”의 핵심적인 논리가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이해하는 중요한 방편이 된다고 하겠다.

호로위츠는 학생들과 다른 피험자에게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를 유발하는 영상과 그렇지 않고 다소 온유하고 소위 중립적으로 보이는 영상들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영상 내용을 보고 느낀 감정, 생각, 기억 등의 정신적인 경험을 기록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영화 속 주요 장면들을 상기시켜 그 장면들에 대한 이미지의 생생함의 정도에 따라서 열 두 개의 등급을 매기게 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주요 장면들의 자극에서 받은 영향을 증명하려 했다. 호로비츠는 이 실험을 할 때 피험자들이 실험 연구자들의 관심과 편견에 유도되거나 유인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의 실험이 시각적인 이미지가 관객에게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의 진짜 실험 목적을 숨기고 “어조 대응과제”(a tone-matching task)(559)라는 명목 하에 실험을 수행했다.⁶⁾ 그 결과 호로비츠는 다음과 같은 결과물을 얻었고 주장한다. 피험자들은 중립적인 영상을 보고 난 후보다는 스트레스가 강한 영상을 보고 난 뒤 시각적 이미지와 그 이미지와 관련된 돌연한 생각들을 훨씬 자주 떠올렸다는 것이다. 이 실험연구의 결과물을 바탕으로 호로위츠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스트레스성 영상을 보고 난 후 의식에 돌연히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영상 자료와 시각적 이미지와 생각들은 트라우마적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도출된 것이며, 그것은 통제되지 않고 통제하기도 힘든 트라우마적 자극의 반복과 지각이다. 따라서 피험자들의 스트레스는 순전히 외부 영상 자체에 기인한다는 결론은 타당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실험 과정은 타워에서 떨어지는 사람들과 관련된 영상 이미지들이 배제된 채 9/11이 국가적 트라우마로 규정되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9/11 직후 시각 미디어가 테러 공격과 관련된 그 어떤 내부갈등을

6) 두 종류의 영상의 내용을 보고 그 영상에 대한 피험자들의 느낌, 감정, 생각에 대한 어조가 어떻게 달라지는 혹은 두 영상을 보고도 어조가 차이가 없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이라고 알려져.

묘사하지 않고 외부의 파괴적인 이미지들을 반복 재생하고 그에 대한 대중의 주관적인 반응을 교차 반복해서 보여줌으로써 트라우마와 유사한 구조를 생산했듯이, 이 실험절차에는 영상 장면과 같은 자극제가 위협적인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 답하는 항목은 있지만 피험자들 자신의 감정에 대한 평가 항목은 제시되지 않는다. 피험자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이미지를 특정 장면들과 연관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영화를 본 직후 그들에게 갑자기 떠오르는 이미지 혹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나는 영상의 장면들이 마치 그 영화의 정확한 복사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스트레스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목격한 외부 이미지들과 영상 장면들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리처드 라자러스(Richard Lazarus)는 영화와 같은 자극제 자체가 피험자 자신의 평가와 상관없이 위협적이기도 하고 중립적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호로위츠와 같은 이론가들의 연구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그는 실험의 평가 과정에 많은 다양한 환경 요인이 개입될 여지가 많은 만큼 평가 과정에 개입될 수 있는 조건을 다양화해서 자극에 대한 피험자들의 반응(평가와 해석)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해서 라자러스는 <할레>("Subincision")라는 짧은 영화를 다양한 집단에게 보여줌으로써 평가 방법과 과정 등의 다양한 매개적인 요인들이 피험자들의 반응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증명해보이려고 했다. 이 영화는 흑백의 단편 무성영화로 오스트리아 원주민의 할레 의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영상에서 나이든 한 남자는 자원해서 성인식에 참여한 것으로 보이는 사춘기 원주민 소년의 생식기를 날카로운 돌로 할레하고 있다. 이후 화면엔 그 소년이 나신의 상태로 피를 흘리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라자러스는 대학생들과 항공사 중역들을 피험자로 삼아서 이 영화 관람 후기를 요청했다. 그런데 라자러스는 피험자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줄 때, 위협적인 내용을 축소하거나 강화하기 위해서 각각의 영상에 음향을 달리해서 들려주고, 그 영화를 보고 난 뒤 떠오르는 이미지나 느낌, 그리고 생각 등을 기록할 것을 요구한다. 먼저 그 영화의 배경음악으로 어느 정도 거리감이 느껴지는 인류학적 관점이나 마치 그러한 경험이 소년에게는 행복한 모험과 같다는 식의 여행담 같은 사무적인 음악을 삽입했을 때, 피험자 양쪽 그룹 모두

그 영화에 대해 위협을 덜 느낀다는 응답을 내놓았다. 그러나 동일한 상황에 공포를 강조하는 배경 음악을 삽입했을 때, 피험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현저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라자러스는 관객의 반응이 음향의 암시적 효과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후 후속 논문에서 라자러스는 그 영화 반응에 대한 보다 더 복잡한 양상을 드러내 보이는 데 주력한다. 여기서 그가 주목한 대목은 각기 다른 피험자들이 동일한 장면에서 다른 양상의 스트레스 반응을 보인다는 점이었다. 가령 거세 장면을 보고 난 뒤,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 징후를 전혀 보이지 않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강하게 역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는 것이다. 라자러스는 후자와 같은 거부 반응은 피험자의 과거 경험이나 동성애적인 환상 때문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런가 하면 라자러스는 다양한 장면들의 재현 순서에 따라라도 피험자들의 스트레스 반응이 달리 표출된다는 것을 관찰했다고 설명한다.

전술된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라자러스는 <할레> 영화를 관람한 후 피험자들이 느꼈다고 말한 위협은 온전히 거세나 할레 주제 자체, 즉 직접적인 영화 내용에 기초해서만 설명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다. 피험자들 각자의 “인성과 방어 대응 스타일, 그리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배우들이나 인물들과의 동일시의 정도”(Lazarus 409)가 스트레스 자극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라자러스의 이 같은 설명은 트라우마적 증상을 원초적인 사건이 거듭 발생한 결과, 즉 트라우마적 사건의 직접적이고 무매개적인 전승의 결과로 보는 “반모방 이론”의 “역사의 원인-결과 모델”(Meek 27)의 한계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며, 트라우마가 외부적인 요인에 기인할 뿐 아니라 상상적 동일시를 포함한 다양한 내부(심적) 요인들에서도 촉발되며, 강력한 외부 암시와 조작의 힘에 의해서 이용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반모방 이론”이 갖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넘어설 대안이 있는가? 그녀 자신이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영화와 미디어 연구가로 잘 알려진 앤 카플란(E. Ann Kaplan)은 “반모방 이론”경향이 갖는 이 같은 문제점과 한계를 누구보다도 절감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방안을 고민으로

했던 문화비평가로 보여진다. 『트라우마 문화』(*Trauma Culture*)에서 카플란이 소묘한 그녀의 개인적인 에피소드 하나는 바로 그러한 고민의 흔적을 역력히 드러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그녀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트라우마의 문제를 고민한 그 에피소드는 우리에게 “반모방 이론”에 대한 대안적인 시각도 함께 엿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유용한 길라잡이가 될 수 있다.

그 에피소드는 9/11 테러 사건 직후 그녀가 겪었던 혼란스러운 경험에 관한 것이다. 테러 공격이 발생하지 며칠이 지났음에도 카플란은 그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되지 않아 폭격의 잔해가 남아 있던 사고 장소에 카메라를 들고 배회하며 그 사건의 내부를 들여다보려는 시도를 했다고 한다. 그때 카플란은 브로드웨이 끝자락에 늘 서 있던 세계 무역센터 건물이 사라져서 잔해더미로 변해 연기를 내뿜는 풍경 때문에 외부 세계가 엄청나게 변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그와 동시에 그녀 “내면세계까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2)고 술회한다. 영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카플란은 2차 세계 대전을 겪은 이후 경찰차의 사이렌과 같은 예기치 못한 소리가 들리면 압박한 공습경보가 떠올라 언제든 뛰어 도망갈 준비를 하고, 수년간 엘리베이터, 터널 등 협소한 공간에 대한 공포를 비롯한 다양한 공포와 끔찍한 악몽에 시달렸다고 한다. 카플란의 기억에 따르면, 그와 같은 외상 후 증상들은 공부를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발현되지 않고 잠잠했던 그 증상들이, 타워가 공격을 받았을 때, 다시 나타났다는 것이다. 타워 붕괴로 인해서 생긴 매캐한 냄새 때문에 그 자신이 살고 있는 빌딩이 불길에 휩싸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터널에서 기차가 정차하기라도 하면 공격에 대한 공포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떨었다고 그녀는 회상한다. 말하자면 새로운 트라우마적 사건이 어린 시절의 사건들과 결합되면서, 역사와 기억, 시간과 공간이 공포라는 현재의 시간 속에 침윤되었고, 그로 인해 새로운 주체성이 산출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카플란은 9/11 사건 직후 그녀 자신에게 나타난 그 같은 일련의 극심한 변화와 위기가 “직접적으로 트라우마를 경험한 것 때문인지”(4) 단정짓기 어려웠다고 진술한다.

한편으로, 타위가 붕괴되었을 때 내가 그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대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호출된 작업자도 아니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그 공격으로 사망한 어떤 한 사람도 몰랐다. 그러나 그 사건은 내가 살고 있던 곳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벌어졌고, 내 일상의 삶에 큰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그것은 보다 이전에 경험했던 직접적인 트라우마를 촉발시켰다.

On the one hand, I had not been in the Towers when they were destroyed, I was not worker called in deal with the catastrophe, and I did not personally know anyone killed in the attacks. Yet, the event had taken place very close to where I lived, it had a big impact on my daily life, and it triggered what had been a direct, earlier trauma. (4)

위 진술에 비춰볼 때, 희생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그렇다고 사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의 역할도 하지 않은 카플란이 마치 9/11의 직접적인 폭격 피해자들과 그들의 가족과 친지들, 그리고 현장 구조자들과 유사한 외상 후의 증상을 보인 까닭은 9/11 사건 자체와 그와 관련된 이미지 자체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과거 사건에 대한 “연상”(association)과 연상된 것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그녀의 “무의식적 동기”(motive)(Radstone 76)와 바람(wish), 공격 장면이나 그 속에 있던 사람들과의 상상적 동일시 때문에 현재의 트라우마가 생겨났다고 보는 것이 옳다. 실제로 앞서 언급된 책에서 카플란은 9/11의 재난으로 말미암아 “세계 2차 대전 때 생겼던 트라우마 증상이 재발해서 그의 직업과 정치적인 정체성의 새로운 위기를 맞았다”(Kaplan 3)고 스스로를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에피소드의 끝에 카플란은 당시 그녀에게 닥친 그 엄청난 위기를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었던 방편을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그 사건이 일어난 무대의 내부로 들어가 그 사건이 다루어지는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 속에 포함된 다양한 차원을 구별해냄으로써 그녀에게 가해진 위협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Kaplan 5 참조)

요컨대 전술된 카플란의 이야기에 비추어볼 때, 트라우마는 단순히 외부적인 요인(사건 자체)에 의해서만 초래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내면적인 갈등, 상상적 투사, 그리고 동일시 등의 복잡한

내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도 촉발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물론 이 같은 사실은 호로위츠와 라자러스의 실험에서도 관찰된바 있으며, 그것은 곧 “반모방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과 관련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럼에도 카플란의 에피소드는 그런 문제 인식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반모방 이론”의 한계와 문제점을 넘어설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다. 그것은 트라우마를 유발한다고 여겨지는 외부적인 사건으로부터 눈을 돌려 내면의 양상을 억압하지 않고 인식할 때, 비로소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해지고, 그럼으로써 그 사건을 다른 차원에서 바라보고 그것에 반응할 대안적인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현대 트라우마 이론의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잡은 “반모방 이론이 그것의 경계와 외연을 확장시키는 일보다는 “그 자체의 이분법적인 매커니즘과 자기 반성적으로 관계”(Modlinger and Sontag 13)할 때 비로소 대재앙적 사건에 따른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들, 그리고 그러한 종류의 사건과 직, 간접적으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통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V. 결론을 대신하며

미디어로 둘러싸인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크던 작던 거의 모든 일들을 미디어 사건으로 경험한다. 그런 까닭에 대재앙적 사건도 일상적 뉴스의 일부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작금의 상황에서 시각 미디어 역할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적 혹은 집단적인 트라우마 경험을 생각하기란 힘든 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전술된 9/11 테러에 대한 미국의 시각 미디어 실천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세월호 참사’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2015년 4월 16일 수학여행 차 제주도를 가는 학생들과 일반인들을 태운 ‘세월호’가 갑자기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런데 사건 직후 우리는 이 참사에서 9/11 사건의 가장 비극적

인 희생자들의 모습이 배제되는 상황과 거의 흡사한 사태를 목격하게 된다. 당시 대한민국의 주요시각 매체들 중 극히 일부만, 그것도 단 며칠 동안, 배가 바다에 완전히 침몰되기 전까지 희생자들이 보낸 다급하고 절박한 구조요청 메시지들과 공포의 순간을 담은 육성들을 들려주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목소리를 담은 영상들은 대중의 눈과 귀에서 사라졌다. 그 목소리가 포함된 영상이미지는 구조가 실패하고 그 실패의 책임자를 가리를 과정에서 완전히 묻혀서 사라지고, 대신 가라앉은 배의 이미지와 배를 버리고 도주하는 선장과 선원들의 비굴한 모습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러한 장면을 보고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비통함, 그리고 좌절과 무력감을 비추는 일에 치중되었다. 이후 대한민국은 세월호 전과 후의 급격한 단절을 경험한 피해국으로 묘사되고, 대한민국의 국민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앓는 치료의 대상으로 규정되면서, 세월호와 함께 침몰된 희생자들의 내부적인 목소리와 그들의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세월호와 관련된 보다 복잡한 문제와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보다는 치유와 정상화의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공론화되었다.

이러한 사태는 9/11 테러 사건을 겪은 이후에도 여전히 9/11 테러 사건의 시각적인 반응과 닮음 꼴의 시각적 재현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 준다. 이것을 달리 말하자면 “반모방 이론”이 여전히 대재앙적 사건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대중적인 시각의 틀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데 전술된 바와 같이 “반모방 이론” 모델은 그 자체에 한계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 이론 모델이 여전히 대재앙과 잔악한 폭력적 사건과 그들의 이미지들 이해하고 설명하는 가장 대중적인 틀로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러한 이론 경향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시대에 필요한 해석 도구임을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인 동시에 그 이론에 대한 보완적이고 대안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모방 이론”에 대한 비평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이론 모델이 갖는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대안적인 시각을 제시한 본 논문의 작업은 이 같은 현시대의 요구에 답하려는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되고, 그 모델을 넘어선 보다 생산적인 대안모델의 창출을 위한 후속적인 연구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 문헌

- Edkins, Jenny, *Trauma and the Memory of Politics*, Cambridge: Cambridge UP, 2003.
- Elsaesser, Thomas, "Postmodernism as Mourning Work." *Screen* 42.2 (2001).
- Frost, Laura, "Still Life," *Literature After 9/11*, Ed. Keniston Ann and Jeanne Follansbee Quinn, New York: Routledge, 2008.
- Geralch, Nathalie, *Falling in the Post-9/11 Nove.*, Munchen: Grin Verlag, 2014.
- Gibbs, Allan, *Contemporary American Narrative*, Edinburgh: Edinburgh UP, 2014.
- Horowitz, Mardri, J., "Psychic Trauma: Return of Image after a stress Film," *Archive of General Psychiatry* 20(1969).
- Junod, Tom, "The Falling Man," *Esquire*. 08 Sept. 2009. Web. 09 Febr. 2014.
- Kaplan, E. Ann, *Trauma Culture: The Politics of Terror and Loss in Media and Literature*, London: Rutgers UP, 2005.
- Keniston, Ann and Quinn, Jeanne Follansbee, "Representing 9/11: Literature and Resistance," *Literature After 9/11*, Ed. Keniston Ann and Jeanne Follansbee Quinn, New York: Routledge, 2008.
- Laub, Dori. "September 11, 2001-An Event without a Voice, 204," Ed. Judith Green Berg, *Trauma At Home: After 9/11*, Lincoln: U of Nebraska, 2003.
- Lazarus, Richard, "A Laboratory Approach to the Dynamics of Psychological Stress," *American Psychologist* 19(1964).
- Leys, Ruth, *From Guilt and To Shame: Auschwitz and After*, Princeton: Princeton UP, 2007.
- Meek, Allen, *Trauma and Media: Theories, Histories, and Images*, New York: Routledge, 2010.
- Modlinger, Martin and Sontag, Philipp, "Introduction," *Other People's Pain: Narratives of Trauma and the Question of Ethics*, Ed. Martin Modlinger and Philipp Sontag, New York: Peter Lang, 2011.
- Radstone, Susannah, "Trauma Studies: Context, Politics, Ethics," *Other People's Pain: Narratives of Trauma and the Question of Ethics*, Ed. Martin Modlinger and Philipp Sontag, New York: Peter Lang, 2011.
- _____, "Screening Trauma: *Forest Gump*, Film, and Memory," *Memory and Methodology*, Ed. Susannah Radstone, Oxford: Berg, 2000.
- Redfield, Marc, *The Rhetoric of Terror: Reflection of 9/11 and the War on Terror*. New York: Fordham UP, 2009.

Smelser, Neil J., "September 11, 2001, as Cultural Trauma," *Trauma At Home: After 9/11*. Ed Judith Greenberg. Lincoln: U of Nebraska P, 2001.

❖ ABSTRACT

The Definition of a Catastrophe as Trauma by Visual Media and
the Resultant Problems: A Critical Analysis of the
“Antimimetic Theory”

Seoh, Gil-Wan

This essay begins by discussing the issue of the definition of a catastrophe as a trauma by visual media and the problems that result. We assume a concrete approach towards these problems by examining the process through which 9/11 was defined as a “national trauma” in the exclusion of images of bodies falling from towers, which were some of the most shocking images in the media coverage of 9/11. The choice to exclude images of falling men from American visual media representations of 9/11 goes hand in hand with the tendencies of a contemporary trauma theory. This essay assumes that the representations in the U.S visual media depend on “antimimetic theory,” one of the leading contemporary trauma theories, in order to validate its logic, and examines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of the theory.

This work aims to examine the issue of the definition of a catastrophe as trauma by visual media on the basis on the “antimimetic theory” and the danger that results. Because the antimimetic theory, which the visual media in the United States uses to define 9/11 as trauma, emphasizes literal and unmediated representation of an external event, it lacks an understanding of the human aspects of the event. There is no way to intervene in the construc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trauma. As a result, the theory discourages active attempts to fi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of the peopl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vent. Thus, it provides an opening for manipulative intervention of an external power. This essay attempts to provide a critical analysis of the “antimimetic theory” in order to help people who witness catastrophic events through various types of visual media, and to seek an alternative means of experiencing and responding to the trauma, that does not stem from the perspective of specific media outlets or external powers.

Key Words

trauma, catastrophe, visual media, 9/11, falling men, “antimimetic theory”

논문접수일: 2016년 05월 10일

심사완료일: 2016년 06월 03일

게재확정일: 2016년 06월 08일